

華嚴敎學의 淨土思想

도업 스님*

I. 서 언

여기서 말하는 화엄 교학의 정토사상이란, 화엄경에 설해지고 있는 정토사상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되고 전개되어온 화엄교가의 정토사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당연히 화엄경의 정토사상과 화엄 교가의 정토사상으로 二分해서 논술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토사상하면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의 본원과 청명염불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미타정토 사상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첫째,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毘盧遮那佛의 의미, 蓮華藏 淨土의 의미, 念佛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며 淨土三部經에서 말하는 無量壽佛 無量光佛의 의미, 極樂淨土의 의미, 稱名念佛의 의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화엄경의 그것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둘째, 화엄경 「入不思議 解脫境界 普賢行願品」(이하 「普賢行願品」이라 함)에는 분명히 彌陀淨土 敎學的인 내용이 설해지고 있다. 「화엄경」 60券本이나 80券本에는 없는 彌陀淨土 사상이 「40화엄

경」인 貞元本에만 설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두 번째 문제다.

셋째, 화엄교가들은 敎學的으로는 화엄사상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미타정도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엄교가들은 미타정도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 문제다.

본고에서는 화엄경과 淨土三部經을 중심으로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華嚴經에 나타난 淨土思想

華嚴經에는 所謂 彌陀淨土思想의인 語句가 적지 않게 說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念佛·念佛三昧·本願·往生·他力·西方極樂世界·無量壽·阿彌陀佛 등이다. 그러나 이들 語句가 반드시 彌陀의 淨土思想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佛敎用語는 固定的이거나 一義的이 아니라 流動的이며 多義的이다. 「華嚴經」의 敎義는 自力性和 論理性和 哲學性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他力性和 非論理性和 信仰性이 풍부한 彌陀淨土敎義와 어떤 一致点이나 相通点이 있을 수 있을까?

佛敎 思想史에서 보면 적지 않은 華嚴敎家들이 彌陀淨土思想을 華嚴的으로 受用하고 있고, 淨土敎家들은 「華嚴經」을 依用해서 西方淨土思想을 體系化하고 있는데, 그 敎理的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華嚴經」과 彌陀淨土思想과의 關係를 究明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華嚴經」 所說의 淨土義・佛身義・念佛義 그리고 彌陀淨土義를 彌陀淨土敎에서 말하는 그것들과 비교해서 論述해 보고자 한다.

1. 淨土義

淨土란 말 그대로 ‘깨끗한 國土’라는 뜻이다. 佛・菩薩이 居住하는 淸淨한 世界라는 뜻이다.

「華嚴經」 所說의 淨土는 곧 蓮華藏世界라 할 수 있다. 「華嚴經」의 華藏淨土와 淨土敎學에서 말하는 西方淨土는 어떠한 關係가 있을까? 즉 遮那淨土와 彌陀淨土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에 대해 華藏淨土를 中心으로 해서 論述함에 있어

- 1) 華藏淨土가 建立되게 된 이유
- 2) 華藏淨土의 位置
- 3) 華藏淨土의 莊嚴
- 4) 證入의 方法, 즉 證入의 實踐行爲에 관해 四部分으로 나누어 彌陀淨土의 그것들과 비교해서 論述하고자 한다.

(1) 蓮華藏世界가 建立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華嚴經」의 「盧舍那佛品」에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此蓮華藏世界海 是盧舍那佛 本修菩薩行時 於阿僧祇世界微塵數劫之所嚴淨
於一一劫 恭敬供養世界 微塵數等如來 一一佛所 淨修世界海微塵數願行¹⁾

1 「大正藏」9-412a

蓮華藏莊嚴世界 즉 華藏淨土가 建立된 이유는, 盧舍那佛이 久遠劫 前에 첫째, 微塵數의 如來를 恭敬 供養했고, 둘째, 微塵數의 願行을 淸淨하게 닦은 功德의 結果라고 說明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華藏淨土는 盧舍那佛의 如來에 대한 恭敬과 願行의 結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彌陀淨土가 建立된 이유는 무엇일까?

『無量壽經』 卷上에 依하면,²⁾

過去 久遠劫 前에 錠光如來가 계셨다. 그때 국왕이 佛陀의 說法을 듣고 正覺을 求하고자 하는 心を 일으키니, 그 이름이 法藏이었다. 그 比丘는 衆生을 救濟하겠다는 48大願을 일으킨 후 不可思議劫 동안 菩薩의 德行을 實踐했다. 法藏比丘는 마침내 菩薩道를 成就한 후 부처가 되어 지금은 西方에 계시는데 그 西方淨土를 安樂世界라 한다는 內容이다.

이 곳을 『阿彌陀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³⁾

즉 法藏菩薩은 成佛해서, 여기서부터 十萬億佛土를 지난 西方에 계시는데, 그 世界를 極樂이라 하며 그 佛陀를 阿彌陀라 한다는 說明이다.

이상에서 보면 彌陀淨土가 建立되게 된 過程도 華藏淨土의 그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즉 法藏比丘는 첫째, 久遠劫 前에 衆生 救濟의 48大願을 세우고, 둘째, 不可思議劫 동안 菩薩의 德行을 修行해서, 阿彌陀佛이 되어 西方의 極樂世界에서 지금도 說法을 하고 있다

2 『大正藏』 12-266c~270a

3 『大正藏』 12-346c

는 것이다.

그러므로 彌陀淨土는 法藏菩薩의 菩薩行과 48大願에 依해서 建立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彌陀淨土가 法藏의 願力所成임을 『觀無量壽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極樂國土有八池水 一一池水七寶所成 其寶柔軟從如意珠王生 分爲十四支 一支作七寶色 黃金爲 渠渠下皆以雜色金剛 以爲底沙 一一水中 有六十億七寶蓮花 …… 如此妙花 是本法藏比丘願力所成⁴⁾

즉 極樂國土에는 衆寶로 莊嚴된 池水·蓮花·妙花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法藏比丘의 願力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華藏淨土는 久遠劫 前에 盧舍那佛이 佛陀를 恭敬하고 供養한 공덕과 願行에 依해서 建立되었고, 彌陀淨土는 久遠劫 前에 法藏比丘가 닦은 菩薩行과 48大願에 依해서 建立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두 淨土는 다름이 없다.

願의 主體者의 이름이 盧舍那佛이나 法藏比丘나 하는 人名의 差異가 있을 뿐이며, 그들에 依해서 建立된 淨土의 이름이 蓮華藏莊嚴世界나, 西方의 極樂世界나 라고 하는 地名의 差別이 있을 뿐, 이들 兩 淨土가 菩薩行과 願力の 결과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蓮華藏世界の 位置는 어디일까.

『華嚴經』의 「盧舍那佛品」에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4 『大正藏』12-342b~343a

當知 有須彌山微塵數等風輪 持此蓮華藏莊嚴世界海 最下風輪名曰平等 彼持一切寶光明地 …… 最上風輪名勝藏 持一切香水海 彼香水海中 有大蓮華名香幢光明莊嚴 持此蓮華藏莊嚴世界海⁵⁾

즉 蓮華藏世界는 十種의 風輪에 依해서 支持되고 있는 大蓮華 속에 있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十種의 風輪이 있다. 最下位의 風輪을 平等이라 하는데 그 風輪에는 一切寶光明地가 있다. 그 위의 風輪은 種種寶莊嚴이라고 하며, 그 안에는 淸淨光寶地가 있다.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서 最上位에 있는 것을 勝藏風輪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는 香水海가 있다. 그 香水海 가운데 大蓮華가 있으며, 蓮華藏莊嚴世界는 바로 이 蓮華속에 있다고 한다.

이 說明만으로는 華藏世界의 位置는 분명하지가 않다. 十種風輪 중 最上位에 있는 勝藏風輪에 있는 香水海, 그 香水海에 있는 大蓮華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盧舍那佛品」에서는 또 蓮華藏世界의 東에는 淨蓮華勝光莊嚴世界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衆寶金剛藏佛國이 있고, 그 佛國에는 法水覺虛空法王佛이 계신다. 蓮華藏世界의 南에는 衆寶月光莊嚴世界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또 無量光嚴佛國이 있고, 그 佛國에는 普智光勝須彌山王이라는 佛이 계시고 …… 또 蓮華藏世界의 上에는 雜寶光海莊嚴世界가 있는데 그 세계는 樂行淸淨佛國이 있고, 그 佛國에는 無礙功德稱離闇光王이라는 佛이 계신다고 한다. 蓮華藏世界의 東西南北과 四維 上下에는 佛國과 그곳의 主佛이 있다⁶⁾는 說明이다. 이는 蓮華藏世界는 十方의 佛國土의 어디에나 있다는 의미가 된다.

5 「大正藏」9-412a~b

6 「大正藏」9-405c~407b

이상의 內容을 요약하면 十方의 佛國土의 한 가운데에 十種의 風輪이 있고, 그 十風輪 중 最上位의 風輪에 香水海가 있으며, 그 香水海 속에 大蓮華가 있다. 그 大蓮華 속에 蓮華藏莊嚴世界가 있다고 華藏淨土의 位置가 說明된다. 그러면 彌陀淨土의 位置는 어디인가?

『無量壽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法藏菩薩 今已成佛 現在西方 去此十萬億刹 其佛世界 名曰安樂⁷⁾

즉 安樂世界는 西方에 있는데, 이 娑婆世界로부터 十萬億佛刹 멀어져 있다는 뜻이다.

『阿彌陀經』에도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⁸⁾

이 娑婆世界로부터 西方으로 十萬億佛土를 지난 곳에 極樂世界가 있으며, 阿彌陀佛이 지금도 그곳에서 說法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彌陀淨土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十萬億佛土를 떨어진 西方 즉 他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蓮華藏世界는 大蓮華속에 있으며, 그 蓮華는 香水海에 있고, 香水海는 東西南北 및 四維 上下의 十方에 있는 佛陀의 世界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十方의 世界에도 香水海가 있으므로 華藏淨土는 特定の 場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十方佛土의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彌陀淨土는 이 娑婆世界가 아닌 他方에 있다. 이 娑婆

7 『大正藏』 12-270a

8 『大正藏』 12-346c

世界로부터 十萬億佛土나 떨어진 西方의 彌陀淨土에만 있다. 그러므로 華藏淨土와 彌陀淨土는 그 所在의 位置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華藏淨土의 莊嚴

淨土는 佛·菩薩의 所居土다. 그러므로 衆寶로 莊嚴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莊嚴되어 있을까?

蓮華藏世界는 四方이 고르게 평평하며, 淸淨하고 堅固하다. 金剛輪山이 그 주위를 두루 에워싸고 있다⁹⁾고 한다.

그 金剛輪山の 香水海에 관해서 「盧舍那佛品」에서는¹⁰⁾ 總論적으로 말하면, 香水海는 衆寶로 莊嚴되어 있으며, 各論적으로 말하면, 香水海의 岸과 香水海를 덮고 있는 網과 그 곳에 가득 차 있는 水는 衆寶로 되어 있다. 一切의 衆華가 滿開해 있어 그 水를 향기롭게 하고 있다. 또한 如來의 妙音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갖가지의 香이 十方世界를 향기롭게 하고 있다고 한다.

또 衆寶로 된 階道와 欄楯과 潮浪은 妙한 音聲을 내고 있으며, 寶華의 樓閣과 城이 둘러 싸여져 있으며, 十由旬이나 되는 大蓮華가 一切世界를 향기롭게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要約하면 華藏淨土는, 衆寶와 妙音과 蓮華의 香으로 莊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미타정토의 장엄은 어떠한가? 彌陀淨土의 莊嚴에 關해서는 「觀無量壽經」¹¹⁾이나 「無量壽經」¹²⁾에도 說해져 있지만 「阿

9 「華嚴經」 「華藏世界品」第5의 1

蓮華莊嚴世界海 住在其中 四方均平 淸淨堅固 金剛輪山 周匝圍繞
(「大正藏」 10-39b)

10 「大正藏」 9-413b

11 「大正藏」 12-342b~c

彌陀經』에 依하면,¹³⁾ 極樂國土는 七重의 欄楯과 羅網 그리고 樹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四寶로 되어 있다. 極樂國土에는 七寶池와 八功德水가 있는데, 功德水의 底와 四邊의 階道 그리고 樓閣은 모두 七寶로 莊嚴되어 있다. 池의 大蓮華는 微妙한 光과 香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阿彌陀經』에서는 極樂國土의 功德莊嚴을 說하고 있다. 즉 그 곳에는 天의 音樂이 있고, 奇妙한 雜色의 諸鳥에 依한 和雅音이 晝夜로 들리고, 가지가지의 미묘한 바람소리와 음악소리가 동시에 들린다고 한다. 이것이 彌陀淨土의 莊嚴이다.

上述한 바에 依하면, 華藏淨土와 彌陀淨土는 모두 衆寶로 莊嚴되어 있다. 그러므로 兩淨土는 衆寶莊嚴이라는 점에서 닮음이 없다.

(4) 華嚴淨土에 証入하는 方法

『華嚴經』은 菩薩行을 說하는 代表的인 經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衆生位에서 佛位에 이르는 菩薩의 階位와 實踐行이 아주 구체적으로 說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菩薩行이란 上求菩提하고 下化衆生하는 自利와 利他的 行이라 할 수 있으며, 『華嚴經』의 「菩薩雲集讚佛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欲求一切智 自然成正覺
先當淨其心 具修菩薩行¹⁴⁾

즉 智와 覺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그 心과 菩薩의 行을 淨修해야

12 『大正藏』 12-270a

13 『大正藏』 12-346c~347a

14 『大正藏』 9-485c

한다는 뜻이다.

또한 「世間淨眼品」에도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無量劫海修功德 供養十方一切佛
教化無邊衆生海 盧舍那佛成正覺¹⁵⁾

盧舍那佛이 正覺을 이룬 것은 十方の 諸佛을 供養하고, 無量の 衆生을 教化한 功德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供養十方一切佛」을 上求菩提로, 「教化無邊衆生海」를 下化衆生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盧舍那佛이 正覺을 이룬 것은 自利와 利他的 菩薩行에 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菩薩說偈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一切世界中 發心求佛者
先立清淨願 修習菩薩行¹⁶⁾

發心해서 佛陀를 求하는 者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清淨한 願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菩薩行을 修習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菩薩行에 있어서 願과 行이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蓮華藏世界가 成就된 것도 菩薩의 願과 行에 依한 것이다.

「盧舍那佛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此蓮華藏世界海 是盧舍那佛 本修菩薩行時 於阿僧祇世界微塵數劫之所嚴淨
於一一劫 恭敬供養世界 微塵等如來 一一佛所 淨修世界海微塵數願行¹⁷⁾

15 「大正藏」9-405c

16 「大正藏」9-442a

17 앞의 註15)와 同.

여기에도 華藏淨土가 成立되게 된 이유가 分明하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久遠劫 前에 盧舍那佛이 菩薩行을 할 때에, 微塵數의 如來를 恭敬 供養하고 微塵數의 願行을 淨修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華嚴經」에서의 實踐行은 菩薩行이고 그 菩薩行은 願과 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華藏淨土에의 証入行은 菩薩行이라 할 수 있고, 十信位로부터 十地 및 等覺 妙覺位까지의 보살행은 菩薩의 願과 行으로 要約할 수 있다.

다음 彌陀淨土에의 往生因은 무엇일까?

世親은 「無量壽經優波提舍」에서¹⁸⁾ 彌陀淨土에의 往生因으로써 ① 禮拜(身業) ② 讚歎(口業) ③ 作願(意業, 奢摩他) ④ 觀察(智業, 毘婆舍那) ⑤ 廻向(大悲)의 五念門을 提示하고 있다.

安樂國土에 往生하기 위해서는, 身·口·意의 三業을 淸淨하게 하고, 三昧를 익히고, 廻向을 實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觀無量壽經」에서는¹⁹⁾ 極樂世界에 往生할 수 있는 實踐行으로써 具足十念과 南無阿彌陀佛의 名號를 稱할 것을 권하고 있다. 彌陀淨土에 往生할 수 있는 實踐行으로 佛名을 稱할 것을 勸하고 있으며,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阿彌陀經」에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 若五日 若六日 若七日 一心不亂 其人臨命 終時 阿彌陀佛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顛倒 卽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²⁰⁾

즉 若一日이나 若二日 내지 七日間만 一心으로 阿彌陀佛의 名號

18 「大正藏」 26-231b

19 「大正藏」 12-346a

20 「大正藏」 12-347b

를 執持하면 彌陀의 極樂國土에 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彌陀淨土에의 往生因으로 「一心不亂」과 「執持名號」를 提示하고 있다.

「無量壽經」에는²¹⁾ 往生因으로써 「至心」과 「十念」 그리고 「願」을 提示하고 있다. 至心으로 無量壽佛을 念하고, 그 나라에 生하고자 하는 願에 依해서 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彌陀淨土思想에서 往生因으로써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具足十念」과 「執持名號」 즉 「稱名念佛」과 함께 「往生願」의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願」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無量壽經」에 依하면,²²⁾ 法藏比丘는 48大願에 依해서 十劫 前에 成佛했고, 지금은 安樂國土에 住하고 있다고 한다. 「觀無量壽經」에서는²³⁾ 極樂國土는 法藏比丘의 願力所成이라고 說한다.

「阿彌陀經」에서는 이렇게 說한다.

若有人已發願 今發願 當發願 欲生阿彌陀佛國者 是諸人等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於彼國土 若已生 若今生 若當生 是故 舍利弗 諸善男子 善女人 若有信者 應當發願生彼國土²⁴⁾

즉 阿彌陀佛國에 태어나기를 願해서 과거에 發願했거나 現在에 發願하거나 미래에 發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 믿음(信)이 있는 者는 마땅히 阿彌陀佛의 國土에 나기를 發願해야 한다고 說한다.

上述한 바에 依하면, 華藏淨土나 彌陀淨土에의 証入行 乃至 往生因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21 「大正藏」12-272c

22 「大正藏」12-267a-270a

23 「大正藏」12-343a

24 「大正藏」12-348a

華藏淨土는 久遠劫 前에 盧舍那佛이 微塵數의 願行을 淨修한 結果로 莊嚴된 淨土며, (盧舍那)佛은 보살행과 함께 淸淨願에 依해서 求해질 수 있다.

彌陀淨土는 法藏比丘의 48大願에 依해서 成立되고 莊嚴된 淨土다. 그리고 그 彌陀淨土에 往生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發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証入行 내지 往生因으로써 願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盧舍那佛이 正覺을 성취해서 華藏淨土의 主佛이 된 것은 無量劫海에 十方의 諸佛을 供養하고 衆生을 敎化한 菩薩行의 結果에 두고 있지만, 淨土三部經은 彌陀淨土에의 往生因을 具足十念 혹은 稱名念佛에 두고 있는 점이다.

이상에서 『華嚴經』 所說의 華藏淨土와 『淨土三部經』 所說의 彌陀淨土를 比較해서 서술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華藏淨土와 彌陀淨土는 菩薩의 願力 所成이라는 點에서 建立된 原因이 같다.

둘째, 華藏淨土는 十風輪 위에 있는 香水海, 그 香水海 위에 있는 大蓮華속에 있다. 그 香水海를 中心으로 十方에 各各 香水海가 있고, 그 香水海마다 大蓮華가 있으며, 그 大蓮華마다 華藏淨土가 있으므로 결국 華藏淨土는 十方의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彌陀淨土는 方向은 이 娑婆世界의 西에, 距離는 十萬億國土 떨어진 他方에 있다. 그러므로 兩淨土의 位置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셋째, 兩淨土는 衆寶로 장엄되어 있다는 점에서 꼭 같다.

넷째, 華藏淨土에의 証入行은 菩薩行으로 要約되는데 반해 彌陀淨土에의 往生因은 願과 함께 十念具足이나 稱名念佛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2. 佛身義

『華嚴經』의 主佛인 盧舍那佛은 法身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西方 極樂世界의 阿彌陀佛과의 關係에서 盧舍那佛의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世親을 위시한 澄觀 등의 華嚴敎家들은 遮那와 彌陀는 無二이며, 蓮華藏世界와 西方極樂世界는 不離며, 不二라 述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阿彌陀佛과 盧舍那佛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佛陀가 되었으며 그 佛陀의 意味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彌陀와 遮那是 久遠劫의 過去世에 願을 세우고 功德을 쌓아서 佛陀가 되었으며, 그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光明無量 壽命無量이라는 점에서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阿彌陀佛이 正覺을 성취해서 佛陀가 된 것은 『無量壽經』 卷上에 依하면,²⁵⁾ 過去 久遠無量劫에 錠光如來가 世上에 興出했고, 이어서 光遠 등의 52佛이 出世했고, 그 다음에 世自在王如來께서 이 세계에 出現했을 때, 한 國王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의 說法을 듣고 心에 歡喜를 내고, 無上菩提心을 일으켜, 王位를 버리고 沙門이 되어 號를 法藏이라 했다. 法藏比丘는 無上の 殊勝한 願을 세우고, 그 佛陀의 處所에 가서 48大願을 말한 후, 永劫에 걸쳐 功德을 쌓아 十劫前에 正覺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어서 無量壽佛의 意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無量壽佛 號無量光佛 無邊光佛 無礙光佛 無對光佛 炎王光佛 清淨光佛 歡喜光佛 智慧光佛 不斷光佛 難思光佛 無稱光佛 日月光佛 …… 佛語阿難

25 앞의 註24)와 同.

無量壽佛 壽命長久 不可稱計²⁶⁾

즉 無量壽佛은 無量光佛·智慧光佛·日月光佛 등으로도 불리는데 그 壽命은 長久하여 計量할 수 없다고 한다.

『阿彌陀經』에서는²⁷⁾ 極樂國土의 佛陀를 왜 阿彌陀라 하는가? 그것은 그 佛陀의 光明은 無量해서 十方의 國土를 비취도 결림이 없기 때문이며, 그 佛陀의 壽命은 물론 그 人民의 壽命도 無量無邊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阿彌陀佛은 無量壽佛이며 無量光佛이다. 그것은 또한 智慧光佛이다. 그것은 佛陀의 智慧의 壽命이 無量하며, 智慧의 光明이 無量하다는 뜻이다.

다음 盧舍那佛의 의미와 成佛 因緣은 무엇인가?

『盧舍那佛品』에 依하면,²⁸⁾ 이 蓮華藏世界海는, 盧舍那佛이 菩薩의 行을 修할 때, 阿僧祇의 世界에서 微塵數劫에 걸쳐 嚴淨 하신 곳이다. ——劫에서 世界의 微塵과 같은 如來를 恭敬하고, 供養하시어 ——의 佛所에서 世界海微塵數의 願行을 淨修하신 결과 이루어진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盧舍那佛이 正覺을 이루신 것은 같은 『盧舍那佛品』에 依하면 다음과 같이 說한다.

無量劫海修功德 供養十方一切佛

敎化無邊衆生海 盧舍那佛成正覺²⁹⁾

즉 盧舍那佛은 無量劫海에 功德을 修하고, 十方의 一切 佛陀를 供養하고, 無邊의 衆生을 敎化해서 正覺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것은

26 『大正藏』12-270a-b

27 『大正藏』12-347a

28 『大正藏』9-412a

29 『大正藏』9-405c

法藏比丘가 48대원을 세워 수행한 후,成佛해서 極樂世界에서 說法하고 있다고 하는 成佛因緣과 大同小異하다. 그러면 盧舍那佛의 意味는 무엇인가?

「探玄記」 卷3에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盧舍那者 古來譯 或云三業滿 或云淨滿 或云廣博嚴淨 今更勘梵本 具言毘盧舍那 盧舍那者 此翻名光明照 毘者此云遍 是謂光明遍照也³⁰⁾

毘란 「遍」의 뜻이며, 盧舍那란 「光明照」의 뜻이다. 그러므로 毘盧舍那란 「光明遍照」의 뜻이라고 法藏은 說하고 있다. 여기서의 光明은 盧舍那佛의 智慧의 光明임은 물론이다. 이 智慧의 光明이 無量無邊함을 「世間淨眼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佛慧光明無邊際 普照十方無量土
令一切衆面覩佛 種種方便化衆生³¹⁾

또한 「盧舍那佛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盧舍那佛大智慧 光明普照無有量
如實觀察眞諦法 普照一切諸法門³²⁾

즉 盧舍那佛의 智慧 光明이 無量 無邊하다는 뜻으로써 이것은 阿彌陀佛의 光明과 壽命이 無量 無邊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盧舍那佛의 壽命에 대해서 「華嚴經」 第26 「壽命品」에서

30 「大正藏」 35-146c

31 「大正藏」 9-401b

32 「大正藏」 9-405c

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佛子 如此娑婆世界釋迦牟尼佛刹一劫 於安樂世界阿彌陀佛刹爲一日一夜 安樂世界一劫 於聖服幢世界金剛佛刹爲一日一夜 …… 佛子 如是次第 乃至百萬阿僧祇世界 最後世界一劫 於勝蓮華世界賢首 佛刹爲一日一夜³³⁾

娑婆世界인 釋迦牟尼 佛刹에서의 一劫은 安樂世界인 阿彌陀 佛刹에서는 一日一夜에 지나지 않으며, 阿彌陀 佛刹에서의 一劫은 聖服幢世界에서는 一日一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서 百萬阿僧祇世界가 있는데, 그 最後의 世界의 一劫은 勝蓮華世界의 一日一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勝蓮華世界에서의 壽命이 얼마나 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 「品」에서는 盧舍那佛의 壽命이 無量하다고 직접적으로 說하고 있지는 않다. 澄觀은 이 「品」에 該當하는 「八十華嚴經」의 「壽命品」을 解說함에 있어 「隨疏演鈔義」 卷 76에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然諸經論說三身壽量 化則有始有終 長短萬品 報則有始無終 一得永常 法身無始無終 應然不變³⁴⁾

즉 三身の 壽命에서 化身은 有始有終이고, 報身은 有始無終이다. 法身の 壽命은 無始無終이니 永遠不變하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法身 盧舍那佛에는 報身の 의미도 있는데, 澄觀은 報身の 壽命은 有始無終이지만, 法身の 壽命은 無始無終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구별을 하고 있지만 彌陀도 遮那도 壽命에서는 無量壽이며,

33 「大正藏」 9-589c

34 「大正藏」 36-600a

無量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上述한 바에 依하면, 盧舍那佛과 阿彌陀佛은 그 이름은 서로 다르나 久遠劫 前에 無數劫 동안 願과 行을 닦아 부처가 되었다는 점과 그 佛陀의 智慧의 光明과 壽命이 無量 無邊하다는 점에서 不離며 不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盧舍那佛은 法身佛인가? 報身佛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述한 바에 의하면, 盧舍那佛에 報身佛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法身佛의 意義에서 고찰한 바는 法身이란 '諸法의 實相' 이며, '自然의 生命力'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澄觀이 法身の 壽命은 無始無終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한 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3. 念佛義

念佛이란 일반적으로는 '佛陀를 憶念하는 것' 이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念의 대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十住毘婆娑論』의 「助念佛三昧品」에서는,³⁵⁾ 新發意의 菩薩은 32相으로써 佛陀를 念해야 하고, 法身으로써 佛陀를 念해야 하고, 實相으로써 佛陀를 念해야 하며, 如來十號의 妙相으로써 佛陀를 念해야 한다고 한다.

『大智度論』의 「八念義」에서는³⁶⁾ 念의 대상으로 佛陀의 十號와 佛陀의 32相과 80隨 形好 및 神通 功德力과 戒·定·慧·解脫·解脫知見의 五分法身과 佛陀의 一切智 등을 列舉하고 있다.

宗密은 『行願品疏鈔』 卷4에서,³⁷⁾ 稱名念·觀像念·觀想念·實相

35) 『大正藏』 26-86a

36) 龍樹 『大智度論』 卷 第21 「八念義」 (『大正藏』 25-218c~220c)

念의 四種念佛을 말하고 있는데, 相貌를 取하지 않고 오직 佛名만을 稱念하는 것을 稱名念이라 하고, 塑畫等の 像을 念觀하는 것을 觀像念이라 하고, 佛陀의 好相을 觀하는 것을 觀想念이라 하고, 自身 및 一切法의 眞實相을 觀하는 것을 實相念이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念佛이라고 하면 「觀無量壽經」 所說의 十念 乃至 稱名號를 생각하기 쉬우나 上述한 바와 같이 念佛에도 多種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淨土敎學에서는 稱名念佛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데, 「華嚴經」 所說의 念佛은 어떠한 念佛일까? 前述한 바와 같이 「華嚴經」에는 念佛·念佛三昧·本願·往生·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無量壽·無量光 등의 語句들이 나오는데, 이들 用語들은 과연 彌陀淨土思想的인 意味로 쓰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것들과는 다른 意味로 說해지고 있을까?

여기서는 먼저 念佛 내지 念佛三昧句를 「六十華嚴經」에서 拔萃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世間淨眼品」에

如是一切皆悉成就念佛三昧³⁸⁾

② 「盧舍那佛品」에

普莊嚴童子 見是如來已 卽得念佛三昧³⁹⁾

③ 「賢首菩薩品」에

念佛三昧必見佛 命終之後生佛前

見彼臨終勸念佛 又示尊像令瞻敬

又復勸令歸依佛 因是得成見佛光⁴⁰⁾

37 「卍續藏經」 卷7周 p.0914a~c, 新文豐出版公司 發行.

38 「大正藏」 9-396c

39 「大正藏」 9-418c

④ 「十行品」에

修習菩提心不亂 念佛三昧不亂 觀察眞實法不亂⁴¹⁾

⑤ 「如來昇兜率天宮品」에

以種種寶蓋 供養如來 長養念佛三昧故⁴²⁾

⑥ 同品에

修念佛三昧 充滿法界 度脫衆生 無量無邊⁴³⁾

⑦ 「十廻向品」에

以心莊嚴而自莊嚴 念佛三昧 普見諸佛⁴⁴⁾

⑧ 同品에

如來出世 令一切衆生得聞佛音 聞佛音已 捨離自大憍慢放逸 得見諸佛
堅固安住念佛三昧⁴⁵⁾

⑨ 同品에

發菩提心 普照一切 正念三世一切諸佛 念佛三昧 悉得具足⁴⁶⁾

⑩ 「十地品」에

所作善業 布施愛語利益同事 皆不離念佛 不離念法⁴⁷⁾

⑪ 「菩薩住處品」에

念佛 於一毛道 見一切佛 教化衆生 念法 不離一如來衆 於一切佛所 對
面聞法 悉能受持 隨應衆生 諸根希望 而度脫之⁴⁸⁾

40 「大正藏」 9-437b

41 「大正藏」 9-468c

42 「大正藏」 9-481c

43 「大正藏」 9-482c

44 「大正藏」 9-507a

45 「大正藏」 9-513c

46 「大正藏」 9-524c

47 「大正藏」 9-552b~556c

48 「大正藏」 9-655a

⑫ 「佛不思議法品」에

一切諸佛 爲一切世界海中種種衆生海 修大善根念佛三昧⁴⁹⁾

⑬ 「佛小相光明功德品」에

諸天子 五欲纏心 修念佛三昧 皆悉除滅⁵⁰⁾

⑭ 「寶王如來性起品」에

若有念如來者 得念佛三昧 正念不亂⁵¹⁾

⑮ 「心王菩薩問阿僧祇品」에

如此娑婆世界釋迦牟尼佛刹一劫 於安樂世界阿彌陀佛刹爲一日一夜 安樂世界一劫 於聖嚴幢世界金剛 佛刹爲一日一夜⁵²⁾

⑯ 「入法界品」에

我若欲見安樂世界無量壽佛 隨意卽見⁵³⁾

⑰ 同品에

我唯知此普門光明觀察正念諸佛三昧 豈能了知菩薩圓滿清淨智行 諸大菩薩得圓滿普照念佛三昧門⁵⁴⁾

이念佛三昧門을 포함해서 21種의念佛三昧門이說해지고 있는데, 「八十華嚴經」의 그것과 對照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9 「大正藏」9-596b~c

50 「大正藏」9-605b

51 「大正藏」9-629c

52 「大正藏」9-589c

53 「大正藏」9-694c

54 「大正藏」9-690a

六十華嚴經

- 1 圓滿普照念佛三昧門
- 2 一切衆生遠離顛倒念佛三昧門
- 3 一切力究竟念佛三昧門
- 4 諸法中心無顛倒念佛三昧門
- 5 分別十方一切如來念佛三昧門
- 6 不可見不可入念佛三昧門
- 7 諸劫不顛倒念佛三昧門
- 8 隨時念佛門
- 9 嚴淨佛刹念佛三昧門
- 10 三世不顛倒念佛三昧門
- 11 無壞境界念佛三昧門
- 12 寂靜念佛三昧門
- 13 離月離時念佛三昧門
- 14 廣大念佛三昧門
- 15 微細念佛三昧門
- 16 莊嚴念佛三昧門
- 17 清淨事念佛三昧門
- 18 淨心念佛三昧門
- 19 淨業念佛三昧門
- 20 自在念佛三昧門
- 21 虛空等念佛三昧門⁵⁵⁾

八十華嚴經

- 智光普照念佛門
- 一切衆生念佛門
- 安住力念佛門
- 安住法念佛門
- 諸方念佛門
- 不可見處念佛門
- 住於諸劫念佛門
- 一切時念佛門
- 一切刹念佛門
- 一切世念佛門
- 一切境念佛門
- 寂滅念佛門
- 遠離念佛門
- 廣大念佛門
- 微細念佛門
- 莊嚴念佛門
- 能事念佛門
- 自在心念佛門
- 自在業念佛門
- 神變念佛門
- 虛空念佛門⁵⁶⁾

㊸ 入法界品」예

復有香名清淨莊嚴 從善法堂生 若燒一丸 悉令諸天得念佛三昧⁵⁷⁾

55 『大正藏』9-690a~b

56 『大正藏』10-334b~c

57 『大正藏』9-713b

⑱ 同品에

見一切刹 一切衆生 皆悉修習念佛三昧⁵⁸⁾

등이 있다.

이상이 『六十華嚴經』 所收의 代表的인 「念佛句」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智顗의 「五方便念佛門」에 依하면,⁵⁹⁾

念佛에는 稱名往生念佛門・觀相滅罪念佛三昧門・諸境唯心念佛

三昧門・心境俱離念佛三昧門・性起圓通念佛三昧門의 五種門이 있는데, 淨土往生을 求하는 者는, 口으로 南無阿彌陀佛을 稱하는 稱名往生門을, 罪障을 滅除하고자 하는 者는, 觀相滅罪門에 依해서, 그리고 深寂定을 求해서 涅槃에 들어가고자 하는 者는, 性起圓通門에 依해서 念佛을 修해야 한다고 한다.

法藏은 앞의 ⑱ 「入法界品」에 나오는 21種의 念佛三昧門에 대해 “처음의 10은 念佛의 勝德이 圓備함을 밝히고, 後의 11은 念佛의 妙用이 自在함을 나타낸다.”⁶⁰⁾고 한다.

澄觀은 이 21種의 念佛三昧를 說明하면서 智顗와 같이 五種의 念佛門을 말하고 있다.

澄觀의 『大疏鈔』에 의하면,⁶¹⁾ 念佛門에는, 稱名往生・觀像滅罪・攝境唯心・心境無礙・緣起圓通의 五種門이 있는데, 稱名往生念佛門이나 觀像滅罪念佛門은 이름에 局執할 뿐 念義가 不足하고, 緣起圓通念佛門만이 性起圓通한 事事無礙의 뜻(義)이라고 한다.

澄觀은 念佛에는 五種門이 있으나 性起圓通한 事事無礙의 實相을

58 『大正藏』 9-784a

59 『大正藏』 47-82a~b

60 法藏 『探玄記』 卷18 (『大正藏』 26-457a)

61 『大正藏』 36-667b~c

念하는 緣起圓通念佛門이 가장 殊勝한 念佛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觀無量壽經」에 의하면,⁶²⁾ 五逆 十惡 등의 諸不善業을 지어 惡道에 떨어져 衆苦를 받아야 할 사람이 命終之時에 괴로움 때문에(苦) 念佛을 할 수 없을 경우, 念佛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至心으로 十念을 具足해서 南無阿彌陀佛을 稱하면 그 稱名の 功德으로, 八十億劫의 生死의 罪障이 消滅되어 一念頃에 極樂世界에 往生할 수 있다는 意味다.

다시 말하면 惡業이 深重해서 臨終時 念佛할 수 없는 下品者라도 稱名에 依해서 往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彌陀淨土教學에서는 往生因으로 稱名念佛이 주로 강조되고 있지만, 위의 經文에 依하면 罪惡이 深重해서 臨終時에 (止觀) 念佛을 할 수 없는 사람은 稱名念佛에 依해서도 往生할 수 있다고 說함으로써 稱名念佛보다 (止觀)念佛이 上位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念佛에는 稱名念·觀像念·觀想念·實相念 등이 있으며 크게 둘로 要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佛의 功德 즉 相好十號 神通力 五分法身 혹은 大智 등을 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佛陀의 名號를 唱하는 것이다. 佛教의 諸經論에 說해 지고 있는 念佛은 대개의 경우 前者에 해당하고, 後者는 彌陀淨土教學에서 말하는 十念이라 할 수 있다. 前者를 止觀念佛이라 한다면 後者는 稱名念佛이다.

「華嚴經」의 念佛 내지 念佛三昧句를 整理해 보면

첫째, 稱名念佛을 직접적으로 說하고 있지는 않지만 彌陀淨土思想

62 「大正藏」12-346a

的인 內容이 說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③, ⑮, ⑯ 番 등의 引用句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세 곳에 說해 지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도 빈약하다.

둘째, 보다 구체적인 彌陀淨土思想이 說해지고 있는 곳은 『大木華嚴經』이 아니라 『四十華嚴經』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後述하고자 한다.

셋째, 『華嚴經』에는 상당히 많은 念佛 念佛三昧句가 있지만 그 내용에는 別다른 의미가 없고 단지 佛陀이나 佛陀의 功德 自體를 念하는 止觀念佛이다.

4. 彌陀淨土義

『華嚴經』은 大乘菩薩道を 說하는 經典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런 意味에서 보면 『華嚴經』은 聖道 自力の 敎義를 說한 經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彌陀淨土思想은 彌陀의 本願力에 依한 往生淨土를 說하는 他力 往生의 敎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만 보면 이 兩 思想은 正反對의 敎說로써 서로 兩立할 수 없는 立場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華嚴經』의 淨土義 佛身義 念佛義 등은 彌陀淨土敎義에서의 그것들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으며, 특히 淨土義 내지 佛身義에만 국한해서 보면 같은 점도 꽤 많다.

그러나 全體的인 敎義에서 보면, 兩 思想은 自力義와 他力義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同一視될 수 없다. 舊·新譯에는 一貫되게 大乘菩薩의 自力義가 中心이 되고 있지만 『四十華嚴經』의 譯出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經의 流通分에 해당되는 곳에 彌陀淨土思想的인 敎義가 說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華嚴經』全體를 통해서 보면, 「賢首菩薩品」⁶³⁾과 「心王菩薩阿僧祇品」⁶⁴⁾의 단 2品에 彌陀淨土思想的인 敎義가 說해 지고 있을 뿐이며, 그 두 곳의 내용도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이 娑婆世界와 極樂世界에서의 時間의 長短의 比較, 또는 念佛三昧에 依해서 命終之後에 佛前に 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단순하다. 그러나 「四十華嚴經」의 소위 「普賢行願品」에는 本格的으로 彌陀淨土思想이 說해지고 있고, 그것도 普賢菩薩의 十種 大願의 終結로써 說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舊·新譯에는 없던 彌陀淨土思想이 「四十華嚴經」의 譯出에 이르러 附加되게 되는 過程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3本 「華嚴經」의 譯出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澄觀의 「行願品疏」 卷2에 의하면⁶⁵⁾ 中國에서 「華嚴經」의 翻譯은 세 번 있었다.

第一譯은 佛駄跋陀羅가 揚州의 謝司空寺에서 梵本 三萬六千偈를 翻譯하니 60卷이었다. 때는 東晉 義熙14年 즉 418年이었다.⁶⁶⁾

第二譯은 實叉難陀가 東都의 佛授記寺에서 舊譯을 補充해서 四萬五千頌을 翻譯하니 80卷本이 되었다. 그때 義淨 圓測 法藏 등이 번역에 同參했고, 때는 唐 証聖 元年 곧 695年이었다⁶⁷⁾고 한다.

第三譯은 般若三藏이 京師의 大崇福寺에서 翻譯을 마치니 40卷인

63 「大正藏」9-437b

64 「大正藏」9-589c

65 「卍續藏經」 卷7冊, p.0510a~c,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66 「六十華嚴經」의 跋文에 依하면, 義熙 14年 卽 西紀 418年 3月 10에 翻譯을 시작해서, 元熙 2年 즉 西紀 420年 6月 10일에 끝났다고 한다.

(「大正藏」9-788b)

67 「八十華嚴經」의 譯出은, 그 序文에 依하면, 証聖 元年(695年)에 시작해서 聖歷 2年(699年) 10月 8일에 끝났다고 한다.

데, 이것은 舊譯의 「入法界品」이다. 때는 貞元 12年 즉 796년이었다⁶⁸⁾고 한다.

여기서 澄觀은 이 經의 卷數나 譯者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

澄觀은 같은 「疏」 卷10에서도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此一卷經 前經數譯 皆所未有 古德判云 經來未盡 故無流通⁶⁹⁾

般若의 「貞元經」 翻譯에 詳定者⁷⁰⁾로써 同參했던 澄觀인데, 이 一卷의 經은 前經의 卷數나 譯者가 자세하지 않다. 그러므로 古德이 判斷해서 말하기를, “經의 由來가 未盡하기 때문에 流通分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貞元經」의 번역에 詳定者로써 그 譯場에 同參했던 澄觀인데도 翻譯 이전의 經의 數나 譯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華嚴經」 譯出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舊譯은 梵本 三萬六千偈에 依해서, 新譯은 四萬五千偈에 依해서 翻譯된 것이다. 즉 이 兩經은 定해진 梵本偈에 依해서 번역된 것이지만, 「貞元經」만은 舊譯의 「入法界品」에 別行經을 付加해서 翻譯한 것이다.

「貞元經」은 40卷으로 되어 있는데 第1卷에서 第39卷까지는 舊譯의 「入法界品」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제40권만은 「入法界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내용이 說해지고 있다. 그것은 普賢菩薩의 十種大願이다. 이 十種大願은 「六十華嚴經」이나 「八

68 「貞元經」의 譯出 年代는 그 跋文에 依하면 貞元 14年 4月로 되어 있다.

(「大正藏」 10-849a)

69 「卍續藏經」 卷7冊 p.0759a,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70 「貞元經」의 跋文 (「大正藏」 10-848c)

『十華嚴經』에는 없는 내용이며, 第十 普皆迴向願에 說해 지고 있는 彌陀淨土句는 別行經의 偈頌이다.

般若는 舊譯의 「入法界品」에 普賢의 十大行願을 付加해서 譯出하면서 동시에 最後의 普皆迴向願에 彌陀淨土思想을 부가해서 說하고 있다.

普皆迴向願의 重頌偈에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⁷¹⁾

이 敎義는 분명히 彌陀淨土思想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이 偈는 般若의 「貞元經」 이전에 이미 別行經으로 流行하고 있었다. 東晉 시대에 佛跋跋陀羅가 翻譯한 「文殊師利發願經」과 不空 譯의 「普賢菩薩行願贊」이 그것이다.

「文殊師利發願經」의 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願我命終時 除滅諸障礙
面見阿彌陀 往生安樂刹⁷²⁾

또한 不空(705 - 774)譯의 「普賢菩薩行願讚」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當於臨終捨壽時 一切業障皆得轉
親覩得見無量光 速往彼剎極樂界⁷³⁾

71 『大正藏』 10-848a

72 『大正藏』 10-879c

73 『大正藏』 10-881b

前者는 五言偈로 되어 있고, 後者는 七言偈로 되어 있으며, 兩經 모두 長行文은 없이 偈로만 되어 있는 短經이다.

이 兩經의 說主는 누구인가? 佛經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듯 하다.

澄觀은 『行願品疏』 卷2에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今貞元所譯 亦是七言 而上二本 竝云是賢吉祥菩薩所造 而非佛經 今乃是經
普賢菩薩所說 良以普 賢與賢首 名義相濫 又多別行 故昔三藏 謂非佛
經⁷⁴⁾

佛駄跋陀羅 譯의 『文殊師利發願經』과 不空 譯의 『普賢菩薩行願讚』의 2本은 賢吉祥菩薩이 지은 것으로써 佛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살펴보니 이 經은 普賢菩薩이 說한 것으로써 普賢과 賢首의 이름이 서로 混亂되고 있고, 또 別行經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三藏은 佛經이 아니라 했다고 說明하면서 澄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又前二本 竝無長行 故十行相 不得顯著
今有長行 條流各別 居然不差 佛經無或⁷⁵⁾

즉 佛陀跋陀羅의 2本에는 長行이 없기 때문에 十行相 즉 普賢菩薩의 十種行願의 要旨을 알 수 없으나, 이 『貞元經』에는 長行이 있고 條流의 各別이 있어 確實한 근거는 없지만 佛經임에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한다.

74 『卍續藏經』第7冊, p.0862a,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75 『卍續藏經』第7冊, p.0863a,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즉 般若의 『貞元經』은 長行과 偈가 갖추어져 있어 佛經으로 보아도 無防하다는 것이 『四十華嚴經』에 대한 澄觀의 理解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般若譯의 『四十華嚴經』은 첫째, 佛馱跋陀羅의 『六十華嚴經』보다 380여년 후에 譯出된 經이다.

둘째, 60卷과 80卷 『華嚴經』의 「入法界品」에 相當하는 것으로써 「華嚴經」의 完譯이 아니라 部分譯이다.

셋째, 이 「經」의 第1卷부터 第39卷까지는 舊譯이나 新譯의 내용과 거의 같으나 最後의 第40卷에만은 普賢의 十種行願이 說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經의 題目은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지만, 특히 이 第40卷만을 「普賢行願品」이라 別稱하기도 한다.

넷째, 佛馱跋陀羅譯의 「文殊師利發願經」과 不空譯의 「普賢行願讚」은 偈만으로 된 獨立의 經인데, 般若는 普賢의 十種行願의 末尾에 이 偈를 付加해서 第40卷 「普賢行願品」을 만들었다. 이 「普賢行願品」에 彌陀淨土思想이 說해지고 있다.

그러면 「普賢行願品」所收의 彌陀淨土思想의 내용은 어떠한가?

「普賢行願品」에 依하면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1) 又復是人 臨命終時 最後剎那 一切諸根悉皆散壞 一切親屬悉皆捨離 一切威勢悉皆退失 輔相大臣 宮城內外象馬車乘 珍寶伏藏 如是一切 無復相隨 唯此願王 不相捨離 於一切時 引導其前 一剎那中 卽得往生極樂世界 到已卽見阿彌陀佛⁷⁶⁾

(2) 是故汝等 聞此願王 莫生疑念 應當諦受 受已能讀 讀已能誦 誦已能持 乃至書焉 廣爲人說 是 諸人等 於一念中 所有行願 皆得成就 所獲福聚無量

無邊 能於煩惱大苦海中 拔濟衆生 令其出離 皆得往生阿彌陀佛極樂世界⁷⁷⁾

『四十華嚴經』에 說해지고 있는 彌陀淨土句는 이 兩句가 전부다. 결코 많은 量은 아니다.

(1)句의 내용을 意譯하면, 목숨이 다 하는 最後刹那에 이르러 四大와 六根이 모두 散壞하고, 모든 親屬이 다 떠나가고, 갖고 있던 一切의 권위나 힘이 退失되고, 주위의 모든 권속과 보배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오직 이 願王만은 남아 있어, 한 刹那 中에 極樂世界에 往生해서 곧 阿彌陀佛을 親見할 수 있다.

(2)句의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願王을 듣고 疑心을 내지 말 것이며, 이 願王을 受持 讀誦하고 書寫해서 널리 衆生을 위해 설해야 한다. 그러면 그 功德이 無量 無邊해서 모든 衆生들은 煩惱의 苦海에서 모두 救濟될 수 있고, 곧 阿彌陀의 極樂世界에 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中心 主題는 願과 그 功德이다. 여기서의 願이란 소위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이다. 즉 ① 禮敬諸佛 ② 稱讚如來 ③ 廣修供養 ④ 懺悔業障 ⑤ 隨喜功德 ⑥ 請轉法輪 ⑦ 諸佛住世 ⑧ 常修佛學 ⑨ 恒順衆生 ⑩ 普皆迴向의 十種大願을 말하며,⁷⁸⁾ 功德이란 菩賢菩薩이 十種大願을 實踐해서 成就한 彌陀淨土에의 往生을 말한다.

菩賢菩薩은 十大願을 實踐하여 얻은 結果의 終結을 彌陀의 淨土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의 長文의 重頌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한다.

(3)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77 『大正藏』 10-846c

78 『大正藏』 10-844b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我既往生彼國已 現前成就此大願
 一切圓滿盡無餘 利樂一切衆生界⁷⁹⁾

즉 普賢菩薩은 命終之時에 一切의 障礙가 除滅되고, 阿彌陀佛을 親見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極樂世界에 往生하기를 發願한 후, 極樂世界에 往生한 후 비로소 자기의 大願이 成就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 이 「品」의 最後의 偈頌에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迴向
 普願沈溺諸衆生 速往無量光佛刹⁸⁰⁾

이는 十種 大願의 殊勝한 福으로 모든 衆生이 阿彌陀佛의 極樂世界에 往生하기를 發願하고 있다. 普賢菩薩의 究極의 願은 모든 중생과 함께 阿彌陀佛의 極樂世界에 往生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60卷과 80卷의 「華嚴經」에 彌陀淨土思想이 說해지고 있는 곳은 「賢首菩薩品」과 「心王菩薩問阿僧祇品」의 두 곳뿐이며, 그 내용도 아주 단편적이다. 다시 말하면 「華嚴經」에는 彌陀淨土의인 思想은 거의 說해 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四十華嚴經」의 最後의 卷인 第40卷에는 普賢의 十種行願이 說해지고 있고, 그 마지막 願인 「普皆迴向願」에 彌陀淨土思想이 구체적으로 說해지고 있다.

이 「普賢行願品」에 彌陀淨土思想이 說해지게 된 것은 般若의 意

79 「大正藏」10-848a

80 「大正藏」10-848b

圖的인 譯出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蓮華藏世界의 結論은 彌陀法門이며, 極樂淨土라고 하는 說로까지 進前시킨 것은, 彌陀淨土思想이 盛行할 때 『文殊師利發願經』 등에 依해서, 善財求道の 最後에 宗教的 意義를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⁸¹⁾

그러나 이와 같은 彌陀淨土思想은 『六十華嚴經』보다 時間的으로는 380余年後에 譯出되었고, 量的으로는 「入法界品」에만 해당하는 「四十華嚴經」에 設해지고 있는 것일 뿐 「大本華嚴經」 所說이 아님은 물론이다.

III. 華嚴敎家の 淨土觀

華嚴思想과 彌陀淨土思想은 自力과 他力, 論理性和 信仰性이라고 하는 点에서 서로 對立的이거나 反對的인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佛教思想史上에서 보면 淨土家⁸²⁾는 華嚴思想을, 華嚴家は 彌陀淨土思想을 依用해서 敎義를 體系化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81 石井敎道, 『華嚴敎學成立史』, pp. 217~218.

82 淨土敎의 道粹은 『安樂集』 卷下에서 念佛三昧必佛見 命終之後生佛前 見彼臨終勸念佛 又示尊像令瞻敬 (『大正藏』 9-437b). 又善財童子求善知識 詣功德雲比丘所自言大師云何修菩薩道歸普賢行也 是時比丘告善財曰 於世尊智慧海中 唯知一法 謂念佛三昧門 (『大正藏』 47-15b)라고, 念佛三昧門을 밝힘에 있어 『華嚴經』의 文을 引用하고 있고, 善導는 『觀經玄義分』 卷第1에 萬行之中 是其一行 何以得知 如華嚴經說功德雲比丘語善財言 我於佛法三昧海中 唯知一行 所謂念佛三昧 (『大正藏』 37-249c)라 述하고 있다. 또 親鸞과 『華嚴經』과의 關係는 그의 書에 인용된 華嚴經의 回數에 依해도 잘 알 수 있다. (中村蕭, 『華嚴의 淨土』, 法藏館, 1991, pp. 253~284)

여기서는 華嚴思想家들이 彌陀淨土思想을 어떻게 이해해서 受用하고 있을까?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古來로 華嚴의 祖師로 五祖說 七祖說 등이 있는데, 凝然의 『五教章通路記』 卷2에 依하면,⁸³⁾ 華嚴의 十大祖師로써 普賢 文殊의 二菩薩과 印度의 馬鳴 龍樹 世親의 三祖師와 그리고 中國의 杜順 智儼 法藏 澄觀 宗密의 五祖師 등이 있다. 그리고 日本의 華嚴 祖師로 朗辨과 新羅의 審祥大德을 들고, 新羅의 華嚴法師로는 元曉를 들고 있다.

여기서는 印度의 三祖師와 中國에서는 杜順을 뺀 四祖師 그리고 新羅의 元曉와 義湘의 彌陀淨土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馬鳴菩薩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大乘起信論』 1권이 있다. 馬鳴은 이 『論』에서,⁸⁴⁾

만일 어떤 사람이 極樂世界の 阿彌陀佛을 專念하고 所修의 善根을 廻向하고, 西方의 極樂世界에 나기를 願하면 곧 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馬鳴은 분명히 彌陀의 極樂世界를 인정하고 往生極樂을 受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자세하게 引用文을 보면, 이 西方淨土에의 往生說은 初學者를 위한 勝方便說임을 알 수 있다. 즉 初心者가 正信을 求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怯弱해서 항상 諸佛을 공양하려고 해도 供養할 수 없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信心이 弱해서 退轉할까 겁내는 者를 위하여 他方淨土를 說한다고 한다.

龍樹는 『十住毘婆沙論』 卷5 『易行品』에서⁸⁵⁾ 世間の 道에 難·易의 二道가 있는 것과 같이 菩薩道에도 難行道와 易行道가 있다고

83 『大正藏』 72-297a~b

84 『大正藏』 32-583a

85 『大正藏』 26-41a~b

말한다.

信方便의 易行에 依해서 阿惟越致地 즉 不退地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는 龍樹의 말은 彌陀易行의 敎義에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龍樹의 易行道說도 역시 方便說임을 前提로 한 것이다. 이 易道行은 怯弱한 下劣의 사람을 위한 말(言)일 뿐 大人 志幹의 說이 아니더라고 龍樹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初期 大乘佛敎學者인 馬鳴과 龍樹는 둘 다 彌陀淨土思想을 인정하고, 또 受用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初學者나 下劣人을 위한 方便說이지 大乘 菩薩의 正道가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十地經論」의 著者인 世親代에 이르면 보다 구체적으로 彌陀淨土思想이 展開된다.

世親은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의 첫머리에,⁸⁶⁾

世尊我一心 歸命盡十方
無礙光如來 願生安樂國⁸⁷⁾

라고 하는 소위 願生偈를 述한 후, 往生因으로 五念門을 제시하고 있다. 즉 安樂世界에 生하고자 원하는 者는 ① 禮拜(身業) ② 讚歎(口業) ③ 作願(意業) ④ 觀察(智業) ⑤ 迴向(方便智業)의 五門을 修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觀察의 대상으로 佛國土功德莊嚴·彌陀佛功德莊嚴·諸菩薩功德莊嚴의 三種 莊嚴을 들고 있다. 이 三種 莊嚴은 彌陀의 本願에 依한 莊嚴으로써 略說하면 一法句에 入하고, 一法句는 清淨句에 들어가며, 清淨句는 즉 眞實智慧無爲法身이다.

86 「大正藏」26-231b

87 「大正藏」26-230c

그러므로 三種의 莊嚴은 곧 眞實智慧無爲法身이다.⁸⁸⁾라고 世親은 說明하고 있다.

世親은 이어서 淨土往生の 五念門을 修하면 五種의 功德이 얻어진다고 말하면서 華藏世界 卽 彌陀極樂說을 말하고 있다.

즉 世親의 『淨土論』에서⁸⁹⁾ 極樂世界에의 往生因과 그 往生因의 實踐에 依해서 얻어지는 功德을 아주 복잡하게 說明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略述하면 往生의 實踐行에 ① 身業(禮拜) ② 口業(讚歎) ③ 意業(作願) ④ 智業(觀察) ⑤ 方便智業(廻向)의 五念門이 있다. 이 五念門을 實行하면 그 功德에 依해서 往生極樂할 수 있다고 말하면 간단할 텐데, 成就 功德을 ① 近門 ② 大會衆門 ③ 宅門 ④ 屋門 ⑤ 園林遊戲地門의 五種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入第一門에서부터 入第五門까지의 五種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入第三門」이다. 이 「入第三門」은 五念門에서 보면 作願門에 相當하고 五功德門에서 보면 宅門에 相當한다.

『淨土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親은 「入第三門者 以一心專念作願生彼 修奢摩地寂靜三昧行故 得入蓮華藏世界 是名入第三門」이라 說하고 있는데, 여기서 世親의 淨土觀을 알 수 있다. 즉 五念門에서 第三門인 作願門을 實踐하면 「得生安樂國」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得入蓮華藏世界」라 述하고 있다. 世親은 蓮華藏世界 卽 安樂世界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世親의 華藏과 極樂의 一致說은 澄觀 代에 오면 舍那와 彌陀의 一體, 華藏과 極樂이 不二라는

88 此三種成就願心莊嚴 略說入一法句故 一法句者 謂清淨句 清淨句者 謂眞實智慧無爲法身故 (『大正藏』26-232b)

89 『大正藏』26-233a

思想으로 展開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中國 華嚴宗의 第二祖로 불리고 있는 智儼의 彌陀淨土觀은 如何할까?

그의 淨土觀은 『孔目章』 卷4 「壽命品內明往生義」⁹⁰⁾에 詳述되어 있다.

智儼은 往生義를 (1) 往生義 (2) 往生所信境 (3) 往生因緣 (4) 往生驗生法 (5) 往生業行 (6) 往生因位分齊 (7) 往生業行廻轉不同的 七門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가) 往生을 說하는 이유는 娑婆世界의 中下의 濡根은 退轉하기 쉬우므로 그들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初學者나 怯弱下劣者를 위한 方便說이라고 하는 馬鳴이나 龍樹의 淨土觀을 그대로 斷承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往生處에는 西方과 彌勒處의 두 곳이 있는데 前者는 煩惱를 끊고자 하는 者를 위한 것이고, 後者는 그렇지 않은 者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⁹¹⁾ 智儼은 彌陀淨土와 彌勒兜率淨土의 두 가지 往生處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와 같은 往生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所信境)이 되는 것은 阿彌陀佛國인데, 그 阿彌陀佛國은 一乘과 三乘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一乘에 依하면, 阿彌陀土는 世界海에 屬한다. 왜냐하면 初機人을 가까이 이끌어 信敎의 境界를 成하기 위함이요, 眞實한 佛國은 圓融하여 不可說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乘에 依하면, 西方淨土는 實報

90 『大正藏』 45-576c-578a

91 往生有二處 一是西方 二生彌勒處 若欲斷煩惱者 引生西方 不斷煩惱者 引生彌勒佛前何以故 西方是異界故 須伏斷惑 彌勒處是同界故 不假斷惑 業成卽往生

(『大正藏』 45-576c)

處로써 ① 法性土 ② 事淨土 ③ 實報土 ④ 化淨土의 四土로 나누어진다고 한다.⁹²⁾

다시 말하면 一乘의 淨土는, 오직 世界海(可說)와 國土海(不可說)의 둘 뿐인데 彌陀淨土는 世界海에 屬하며,⁹³⁾ 三乘의 西方淨土는 實報處로써 眞如所成의 法性土・衆寶所成의 事淨土・理行所成의 實報土・化現諸方所有의 化淨土 등의 四土가 있다고 한다.⁹⁴⁾

(다) 往生의 因緣에 대해서도 三乘에서는 복잡하게 說하고 있지만, 圓敎에서는 “一切가 因이니 모든 敎는 往生을 이루기 때문이다”⁹⁵⁾라 한다.

(라) 往生의 驗生法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 道場에 彌陀像을 모셔 놓고 念佛 懺悔 十六觀을 行하는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孟蘭分法 灌頂法 追善供養法 등이 다 往生法이라고 한다.⁹⁶⁾

(마) 往生의 業行 또한 ‘正・助’ 一切業行이 다 往生의 業行이 된다고 한다.⁹⁷⁾

(바) 淨土에는 어떤 位의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智儼의 答은 다음과 같다.

十解 以前의 信位에서 十善業으로 바르게 修行하는 者가 이 敎家의 직접적인 대상(正所爲之位)이 된다. 왜냐하면 이 位에서는 防退

92 謂阿彌陀佛國 一乘三乘不同 若依一乘 阿彌陀土 屬世界海攝 何以故 爲近引初機成信敎 境眞實佛國圓融不可說故 若依三乘 西方淨土 是實報處 通成四土 一法性土 二事淨土 三實報土 四化淨土 (『大正藏』45-576c)

93 智儼 『搜玄記』 卷第1下

凡依三乘 淨土有四種 一性 二報 三事 四化可知 若依此部一乘 但有二種 謂世界海及 國土海 (『大正藏』35-23c)

94 智儼 『孔目章』 「十種淨土章」 (『大正藏』45-541a)

95 圓融一切因 何以故 諸敎皆成往生故 (『大正藏』45-577a)

96 『大正藏』45-577a-b

97 總說正助一切業行 皆爲往生業行 (『大正藏』45-577b)

失・退滅・廢退의 三退가 있지만, 十解 이상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說은 終敎에 依한 것이지만 初敎에 依하면 十廻向 以下가 그 대상(所爲)가 된다. 十廻向 以後에는 不退를 得하기 때문이다.⁹⁸⁾ 그렇다면 頓敎와 圓敎에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智儼의 答은 다음과 같다.

若約頓敎及圓敎 在信位終心自分已還 所是爲位 頓敎及圓敎 雖無相遲疾異而約終敎辨 其見聞約成多少 仍理自不同 宜可準知⁹⁹⁾

頓敎 및 圓敎에 依하면, 信位 終心の 自分 以後가 대상(所爲位)이 된다. 이것은 終敎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理致에 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끝으로 淨土에 往生한 후 廻向하여 利他行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智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今生西方 至彼得不退 雖有前後 仍取不退 以爲大宗¹⁰⁰⁾

즉 西方에 生하여 不退를 얻게 하는 것으로써 大宗을 삼는다고 한다.

이상은 「壽命品內明往生義」에 나타난 智儼의 淨土觀이다.

이상의 論述에서 보면 智儼은, 馬鳴이나 龍樹의 淨土觀 즉 他方淨土說은 初學者나 下劣者를 위한 方便說이라고 하는 立場을 受用하면서 또 華藏과 極樂이 不二라고 하는 世親의 主張도 배척하지 않

98 『大正藏』 45-577b

99 『大正藏』 45-577b

100 『大正藏』 45-577c

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往生義를 七門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智儼은 華嚴家の 立場에서 처음으로 淨土義를 小乘・三乘・一乘의 立場에 依해 說明했다는 점에 큰 意義가 있다 할 수 있다.

法藏은 「探玄記」에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諸教所說分齊不同 若小乘中 但有一娑婆世界 若三乘有二 一化身化境 謂此娑婆等 二他受用身化境 謂十八圓滿淨土等 若約一乘十佛化境 蓮華藏莊嚴海有三種¹⁰¹⁾

法藏은 彌陀淨土에 대해서 직접 言及하고 있지는 않다. 蓮華藏世界에 관해서 이상과 같이 述하고 있을 뿐이다. 蓮華藏世界는 「六十華嚴經」에는 「盧舍那佛品」에, 「八十華嚴經」에는 「華藏世界品」에 說해지고 있다.

蓮華藏世界는 小乘의 立場에서 보면 이 娑婆世界 그것이며, 三乘의 立場에서 보면 二種이 있다. 化身化境인 이 娑婆等の 世界와 他受用身化境인 十八圓滿淨土等の 世界가 있다고 說明한 후, 이어서 一乘의 立場에서 보면, ① 蓮華台藏世界 ② 遍法界의 華藏世界 ③ 樹形等の 雜類世界の 三種이 있는데 이 가운데 ①은 同敎一乘에 約해서 辨한 것이고, ②와 ③은 別敎에 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¹⁰²⁾

이상은 法藏의 蓮華藏世界觀이지만 極樂과 華藏이 不二라고 하는 前提하에서 보면 法藏의 極樂淨土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淸涼 澄觀은 彌陀淨土說을 어떻게 受用하고 있을까?

淸涼은 「演義鈔」 卷85¹⁰³⁾에서,

101 「大正藏」 35-162c

102 「大正藏」 35-162c

① 稱名往生念佛門 ② 觀像滅罪念佛門 ③ 攝境唯心念佛門 ④ 心境無礙念佛門 ⑤ 緣起圓通念佛門의 五種 念佛門을 述한 後에 이 가운데서 稱名念佛이나 觀像念佛은 念義가 不足하고, 第五門만이 性起圓通의 事事無礙義를 나타낸다고 한다. 稱名念佛이나 觀像念佛은 怯弱者를 위한 方便說로써 下劣之言이며, 性起圓通念佛만이 大人志幹의 說로 受用하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같은 淨土觀은 馬鳴이나 龍樹의 說을 그대로 受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世親의 淨土觀을 相承하고 있다.

「華嚴經疏」 卷60에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此諸佛皆遮那之身 …… 無量壽佛 月覺如來 皆遍十方 豈容隔此 …… 況華藏剎海 皆遮那化境 無 量壽等 未出剎種之中 豈非是此佛耶¹⁰⁴⁾

여기서 그는 遮那와 無量壽 즉 彌陀의 一體說을 말하고 있고, 華藏과 極樂의 不二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華嚴一乘의 立場에서 본 彌陀淨土觀으로써 世親의 淨土觀을 그대로 受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圭峯 宗密의 彌陀淨土觀은 如何할까?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頌에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剎¹⁰⁵⁾

澄觀은 이 곳을 說明함에 있어 「蓮華藏에 生하지 않고 極樂에 生

103 「大正藏」 36-667b~c

104 「大正藏」 35-962b

105 「大正藏」 10-848a

하는 것은 略해서 四意가 있다. ①은 有緣때문에, ②는 衆生으로 하여금 歸憑의 情이 一이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③은 華藏을 離하지 않기 때문에, ④는 즉 本願이기 때문에」¹⁰⁶⁾라 말하고 있는데, 圭峯은 이 部分을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說明하고 있다.

圭峯의 「鈔」에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鈔略有四意者 一彌陀願重偏接娑婆世界入 二但聞十方皆妙 此彼融通初心忙忙無所依託故方便引之 三極樂去此但有十萬億佛土華藏中所有佛刹 皆微塵數 故不離也 …… 故知阿彌陀佛國 不離華藏界中也 四卽此第三十九偈讚品云 或有見佛 無量壽觀自在等共圍繞乃至 賢首如來阿闍釋迦等彼並判 云讚本尊遮那之德也¹⁰⁷⁾

즉 圭峯은 極樂과 華藏이 다르지 않고, 無量壽는 本尊인 遮那의 德이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華藏과 極樂, 遮那와 彌陀는 不離며, 不二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상에서 印度나 中國에 있어서 華嚴家들은 彌陀淨土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新羅의 元曉와 義湘의 彌陀淨土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元曉(617~686)는 어느 특정한 宗派나 敎學만이 아니라 당시 流通되고 있던 모든 經論에 關心을 가지고 注釋을 하고 있지만, 「華嚴經」과 「起信論」에 특별한 關心이 있었던 것 같다.

「華嚴經」에 關한 그의 關心은 著述과 敎化方便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著述에 超人的인 能力이 있었는지 總 77種 149卷의 多作이 있었으며, 現存하는 것만도 23種 30卷에 이른다고 한다. ¹⁰⁸⁾ 이들

106 「華嚴經行願品疏」 卷10 (「卍續藏經」 卷7冊 0770a,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107 「卍續藏經」 卷7冊 0997c~0998a, 新文豐山出版公司 發行.

108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pp.183~184

著述 중 『起信論』에 關한 것이 8部 14卷이나 되고 『華嚴經』에 關한 것이 7部 15卷이나 된다고 하니 이 兩書에 대한 그의 關心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華嚴經』에 關한 그의 關心은 衆生の 敎化 方便道에도 잘 나타나 있다.

『三國遺事』에 依하면,¹⁰⁹⁾ 그는 瑤石公主와 失戒하여 薛聰을 生한 후 俗服으로 바꾸어 입고, 小姓居士라 自號하면서 民衆 속에 함께 살면서 敎化에 노력했다. 그는 「無礙」라고 하는 瑰奇한 모양의 敎化 道具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衆生 敎化에 노력했는데, 그 「無礙」라는 이름을 「華嚴經」의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¹¹⁰⁾라는 偈頌에서 지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元曉의 敎化에 依해서, 가난하고 蒙昧한 사람들이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南無阿彌陀佛을 稱하게 되었다고 한다.

元曉는 「華嚴經」 뿐만 아니라 彌陀淨土思想에도 큰 關心을 가지고 있어 淨土關係 著述로 現存하는 것만도 「無量壽經宗要」 1卷 「阿彌陀經疏」 1卷 「遊心安樂道」 1卷 「彌陀証性偈」 一篇 등 4部 3卷 1篇이 있다.¹¹¹⁾

여기서는 元曉가 말하는 四種의 淨土門과 淨土에의 往生因 특히 「十念」의 問題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元曉의 「阿彌陀經疏」에 依하면, 元曉는 器世間과 衆生世間이 淸淨한 것을 淨土라 하고, 그 淨土에 들어감에 四門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9 一然 「三國遺事」 卷第4 「元曉不羈」條 (『大正藏』 49-1006a~b)

110 「華嚴經」 第6 「菩薩明難品」에 文殊菩薩의 물음에 대한 賢首菩薩의 答으로써 文殊法常爾 法王唯一法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에 있는 偈이다.

(『大正藏』 9-429b)

111 「韓國佛敎全書」 第1冊, pp. 553~580 所收.

此清淨有二種 一者器世間清淨 二者衆生世間清淨 乃至 廣說故 然入此清淨有其四門 一圓滿門 唯佛如來 得入此門 如本業經說 二一向門 八地已上 菩薩得入此門 如攝大乘論說 三純淨門 唯有第三 極歡喜地已上 菩薩得入此門 如解深密經說 四正定聚門 唯無退者 得入此門 無邪定聚及不定聚 如兩卷經說¹¹²⁾

즉 元曉는 淨土를 四門으로 나누고 있는데, ① 圓滿門은 오직 如來만이 들어갈 수 있고, ② 一向門은 八地 이상의 菩薩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③ 純淨門은 第三 歡喜地 이상의 菩薩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④ 正定聚門은 오직 無退者 즉 正定聚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淨土에 往生할 수 있는가? 元曉는 淨土에의 往生因을 正因과 助因의 二種으로 나누고 있다.

『無量壽經宗要』에 依하면, 正因이란 無上菩提心を 發하는 것인데, 그 發心에는 隨事發心과 順理發心の 二種이 있다. 前者는 退轉할 가능성이 있고 不定性人도 發할 수 있지만, 後者는 退轉함이 없고 菩薩種性人이라야만 發할 수 있다고 한다.¹¹³⁾

다음 助因에는 多種이 있지만 「彌陀를 十念만 해도 往生한다」고 하는 下輩十念을 말하고 있다.¹¹⁴⁾

그런데 일반적으로 淨土經典에서 말하는 往生因으로써의 十念에는 「乃至十念」과 「具足十念」의 二種이 있다. 예를 들어 「乃至十念」에 대해서는 「無量壽經」 卷上의 第18願에 다음과 말하고 있다.

112 『大正藏』 37-348c

113 『大正藏』 37-128c

114 次明助因 助因多種 今且明其下輩十念 (『大正藏』 37-129a)

設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
五逆 誹謗正法¹¹⁵⁾

또한 「無量壽經」 卷下의 下輩文에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其有至心 欲生彼國 假使不能作諸功德 當發無上菩提之心 一向專意 乃至十
念 念無量壽佛 願生其國 …… 此人臨終 夢見彼佛 亦得往生¹¹⁶⁾

「無量壽經」에서는 往生因으로써 乃至十念을 說하고 있음에 反
해 「觀無量壽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具足十念」을 說하고 있다.

汝若不能念彼佛者 應稱歸命無量壽佛 如是至心令聲不絕 具足十念 稱南無
阿彌陀佛 稱佛名故 …… 如一念頃 卽得往生極樂世界¹¹⁷⁾

十念을 說하고 있는 經典은 적지 않으며, 그 經典마다 十念을 구
체적으로 說하고 있으나,¹¹⁸⁾ 「無量壽經」과 「觀無量壽經」의 경
우는, 十念의 內容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無
量壽經」의 「乃至十念」의 十念과 「觀無量壽經」의 「具足十念」의
그것은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元曉는 往生因의 助因으로써 十念이 있는데, 그 十念에 顯了的의 十
念과 隱密의 十念의 二種이 있다고 말하면서 顯了的의 十念이란 「觀
無量壽經」에, 不善業이나 五逆十惡을 지은 下品下生者라도 至心으
로 十念만을 具足해서 南無阿彌陀佛의 名號를 稱하면 곧 往生할 수

115 「大正藏」12-268a

116 「大正藏」12-272c

117 「大正藏」12-346a

118 예를 들어 「增一阿含經」 卷第34에는 念佛·念法·念比丘僧·念戒·念施·念天·
念休息·念安般·念身·念死 등의 十念이 說해지고 있다. (「大正藏」2-740a)

있다고 하는 바의 「具足十念」을 말한다¹¹⁹⁾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易行의 十念이다.

隱密의 十念이란, 「彌勒發問經」에 說하고 있는 十念을 말한다. 예를 들면,

① 一切 衆生에게 항상 慈心を 내어 그 行을 훼손하지 않는다. 만약 그 行을 훼손하면 끝내 往生하지 못한다. ② 一切 衆生에게 깊은 悲心を 일으켜 害意를 없게 한다. …… ⑩ 正念으로 佛을 觀하고, 諸根을 除去한다.¹²⁰⁾ 등의 十念인데 이와 같은 十念은 凡夫들이 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菩薩만이 具足할 수 있다고 한다.¹²¹⁾ 그리고 「無量壽經」의 「乃至十念」의 十念은 顯了的의 十念과 隱密의 十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한다.¹²²⁾

元曉의 十念觀을 다시 요약하면, 「觀無量壽經」의 十念 즉 具足十念은 顯了的의 十念으로써 下品下生者라도 稱名에 依해서 往生할 수 있으나, 「彌勒發問經」所說의 十念 즉 「慈等」의 十念은 隱密의 十念으로써 初地 以上の 菩薩만이 具足할 수 있다. 그리고 「無量壽

119 元曉 「無量壽經宗要」에 言顯了義十念相者 望第四對淨土而說 如觀經言 下品下生者 或有衆生 作不善業 五逆十惡 具諸不善 臨命終時 遇善知識 爲說妙法 教令念佛 若不能念者 應稱無量壽佛 如是至心 令聲不絕 具足十念 稱南無佛 稱佛名故 於念念中 除八十劫生死罪 命終之後 卽得往生 …… 此是顯了的十念相 (『大正藏』12-129a~b)

120 「彌勒發問經」所說의 十念이란 一者 於一切衆生 常生慈心 於一切衆生 不毀其行 若毀其行 終不往生 二者 於一切衆生 深起悲心 除殘害意 三者 發護法心 不惜身命 於一切法 不生誹謗 四者 於忍辱中 生決定心 五者 深心清淨 不染利養 六者 發一切種智心 日日常念 無有廢忘 七者 於一切衆生 起尊重心 除我慢 意謙 下言說 八者 於世談話 不生味著心 九者 近於覺意 深起種種善根因緣 遠離憤悶散亂之心 十者 正念觀佛除 去諸根 (『大正藏』37-129a)

121 如是十念 既非凡夫 當知初地以上菩薩 乃能具足十念 (『大正藏』37-129a)

122 今此兩卷經說十念 具此隱密顯了二義 (『大正藏』37-29a)

經」의 十念 즉 乃至十念은 顯了·隱密의 十念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元曉는 淨土關係 經典 중에서도 「無量壽經」을 重要視했던 것 같다.

新羅 義湘(625~702)은, 文武王 1年(龍朔1年, 661年)에 入唐해서 智儼의 華嚴學을 受學하고,¹²³⁾ 總長 1年(668) 7月 15日에 「華嚴一乘法界圖」 1卷을 지어, 스승 智儼으로부터 認可를 받은 후¹²⁴⁾ 671년에 歸國하여 海東華嚴의 初祖로 불리우고 있는 人物이다.¹²⁵⁾

在唐 中에는 師兄의 위치에 있으면서 후에 中國 華嚴宗의 第三祖인 法藏과 同門 修學하였다. 在唐 中에 있었던 善妙와의 戀話는 日本의 高山寺 明惠에게까지 傳해져 善妙는 新羅의 女神으로 信仰되기도 했다.¹²⁶⁾ 歸國 後에는 浮石寺 等 華嚴十刹을 세우고, 悟眞等 十大弟子에게 華嚴의 奧意를 가르쳤다고 한다.¹²⁷⁾ 義湘은 思想的인 면에 있어서는 오직 華嚴敎義에 依持했다고 할 수 있으나, 信仰面에 있어서는 彌陀와 觀音에 依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義湘의 淨土關係 著述로는 「阿彌陀經義記」 1卷이 있었다¹²⁸⁾고 하나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體系的인 그의 淨土觀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彌陀나 觀音을 信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唐에서 671년에

123 「三國遺事」 「義湘傳敎」條 (『大正藏』 49-1006c)

均加 「華嚴一乘法界圖圓通鈔」 (『韓國佛教全書』 第4冊, 1a)

124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大正藏』 45-716a)

125 崔致遠은 「海東華嚴初祖 浮石尊者讚」 (『韓國佛教全書』 4冊, 632a)을 남기고 있고, 贊寧 「宋高僧傳」 卷4 「義湘傳敎」에는 湘終于本國 塔亦存焉 號海東 華嚴初祖也 (『大正藏』 50-729c)라 있다.

126 「高山寺緣起」 (『大日本佛教全書』) 117冊 p. 315에 善妙神新羅國女神也 有華嚴 擁護之誓 故勸請之 라 있다.

127 「三國遺事」 「義湘傳敎」條 (『大正藏』 49-1006c~1007a)

「三國遺事」 「眞定師孝善双美」條 (『大正藏』 49-1017c)

128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 (『大正藏』 55-1172a)

歸國한 후, 676년에 最初로 세운 浮石寺에 無量壽佛을 모시고, 東海의 落山 白花道場에 觀音을 모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義湘은 華嚴의 根本道場으로 浮石寺를 創建한 후, 本尊으로 阿彌陀佛을 모시고 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浮石寺의 圓融國師碑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是寺者 義湘師遊方西華 傳炷智儼後 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儼云一乘阿彌陀 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觀世音菩薩灌頂受記者 充諸法界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故口口補處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儼師以此傳相師 相事傳法嗣于國師¹²⁹⁾

이 碑는 高麗 文宗 18年 1054년에 세워진 것이고, 현재의 佛像 또한 高麗 中期的 作品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佛像이나 伽藍의 구조를 가지고 創建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碑가 ‘傳聞’을 記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創建 때부터 그런 樣相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像殿 內에 왜 오직 阿彌陀佛像만을 모셨는가? 라는 질문에 義湘은 “一乘의 阿彌陀는 涅槃에 들어감이 없다. 十方淨土로써 體를 삼아 生滅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스승인 智儼의 말을 引用해서 答하고 있다.

華嚴의 根本道場인 浮石寺의 本當에 『華嚴經』의 主佛인 毘盧遮那佛을 모시지 않고 阿彌陀佛을 모신 이유는 一乘의 阿彌陀는 十方淨土를 體하여 生滅의 모습(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義湘이 彌陀信仰을 受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129 「朝鮮金石總覽」 卷上, p. 271.

할 수 있을 것이다.

浮石寺의 本當은 南向의 無量壽殿이다.

그런데 本當 內에는 東向의 阿彌陀如來像이 安置되어 있다. 그 이유는

無寄撰 『釋迦如來行蹟頌』 卷下에 다음과 같이 述해져 있다.

昔新羅義湘祖師 專求安養 平生坐不背西 其門徒中 有一犯罪比丘 依法擯之 離群出去 遊行他界 仰慕其師 造像負行 師聞之 召來告曰 汝若實憶我者 我一生來 坐不背西 像亦應尔 於是令像背西 而坐像自廻身 向西而坐 師乃善之 赦罪還攝 是故求西應仰效之¹³⁰⁾

義湘은 平生 安養만을 求해 西를 등지고는 앉지도 앉았다고 한다. 그를 思慕하던 弟子가 그의 像을 만들었는데, 그 像이 西를 등지게 놓았지만 그 像은 스스로 몸을 돌려 西를 向해 앉았다고 한다.

이것은 西方淨土에 대한 義湘의 신앙이 얼마나 컸던가를 나타내는 史話라 생각된다.

義湘은 또한 觀音信仰者였다.

『三國遺事』의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에 依하면,¹³¹⁾ 義湘은 唐에서 歸國한 後, 觀音菩薩·眞身이 이 東海邊의 堀 속에 住한다는 말을 듣고, 이 곳을 洛山이라고 이름했다. 西域에 寶陀洛伽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을 小白華라고도 했는데 白衣觀音의 眞身이 住하고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¹³²⁾ 義湘은 그 곳에서 七日間 齊戒한 후, 觀音의 眞容을 보았다고 한다.

現在 江原道 襄陽郡의 東海岸에 있는 洛山寺는, 그 때 觀音菩薩의

130 『韓國佛教全書』 第6冊 537c.

131 『大正藏』 49-996c~997b

132 『大正藏』 51-1135a~c

感應에 依해서 義湘이 創建한 절(寺)로써 지금도 韓國의 三大 觀音道場중의 하나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義湘의 觀音信仰은 그의 「白花道場發願文」에 잘 나타나 있다. 이 「發願文」은 總十九章 가운데 第五・第七章이 缺落하여 文脈이 끊어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文句에서 義湘의 觀音信仰을 볼 수 있다.

稽首歸依觀彼本師觀音大聖大圓鏡智 亦觀弟子性淨本覺(第五章 缺落) ……
所有本師 水月莊嚴無盡相好 亦有弟子空花身相有漏形骸 依正淨穢苦樂不同
(第七章 缺落) …… 今以觀音鏡中弟子之身歸命頂禮弟子 鏡中觀音大聖 發
誠願語冀蒙加被 惟願弟子 生生世世 稱觀世音 以爲本師 如菩薩頂戴彌陀
我亦頂戴觀音大聖¹³³⁾

여기서 義湘은 觀音의 無盡相好・淨・樂와 弟子의 有漏形骸・穢・苦는 서로 다르지만, 觀音의 大圓鏡智와 弟子의 性淨本覺은 서로 通한다고 말한다. 華嚴思想에서 보면 ‘緣起相由, 法性融通’이라 할 수 있다.

義湘은 “弟子는 世生生에 觀世音을 稱하여 本師로 하겠습니다. 觀音菩薩께서 阿彌陀를 頂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도 또한 觀音大聖을 頂戴하겠습니다.” 하고 發願하고 있다.

觀音은 勢至와 더불어 彌陀의 補處菩薩이다.

義湘이 浮石寺에 彌陀를 洛山에 觀音을 모신 것은 義湘의 彌陀淨土信仰의 表現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華嚴家들은 敎學的으로는 華嚴思想을 受用하면서도 信仰的으로는 彌陀淨土思想을 排除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한가지 特徵的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大乘初期의

133 『韓國佛教全書』 第6冊, 537c

華嚴家들, 예를 들면, 馬鳴 龍樹 등은 彌陀淨土義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下劣者를 위한 方便說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大乘 中期의 世親은 願生偈를 지어 極樂國에의 往生을 發願하면서 동시에 往生因으로 五念門을 말하고 있다. 世親은 『淨土論』에서 蓮華藏世界와 極樂世界는 같은 것, 즉 華藏과 極樂은 不二인 것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澄觀과 宗密은 이說을 이어서 華藏과 極樂, 遮那와 彌陀가 不二임을 보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智儼은 往生義를 七門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彌陀淨土를 說明하고 있으며, 一乘과 三乘의 立場에 따라 淨土義가 다를 것을 말하고 있다.

新羅의 元曉는 十念義를 顯了와 隱密의 十念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고, 義湘은 浮石寺에 彌陀를, 洛山寺에 觀音을 모셔 彌陀淨土信仰을 受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華嚴家들이 敎學的으로는 華嚴思想을 受用하면서도, 信仰的으로는 彌陀淨土思想을 受用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華嚴經』의 信仰性 때문이라 생각된다. 華嚴思想은 깊은 眞理性이나 體系的인 論理性은 있으나 宗教的인 信仰性이나 實踐性은 弱하다.

『華嚴經』에는 구체적인 菩薩行이 說해 지고 있고, 杜順은 三觀法을 提示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實踐行은 專門家들만이 할 수 있는 難行道이다.

中國에서 華嚴宗이 成立될 때나 新羅 高麗時代의 華嚴法會때에 華嚴行者들은 講經行 轉讀行 寫經行을 주로 하고 있는데¹³⁴⁾ 이와 같

134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의 研究」, 春秋社, 昭和51年 3月 pp. 59~66

拙稿, 「韓國佛敎における華嚴信仰의 展開 — 華嚴法會を中心として」(『朝鮮學

은 實踐行은 大衆性이나 宗教性이 약하다.

中國에서 三論宗이나 華嚴宗이 宗教로써 일찍이 衰亡해 버린 것은 그 敎理의 眞理性이나 難解性 때문이 아니라 그 實踐行이 消極적이고, 非大衆性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¹³⁵⁾고 생각된다.

이에 反해 淨土敎의 實踐行은, 稱名念佛 또는 具足十念과 같이 단순하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에 關係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易行性和 大衆性이 있다.

그러므로 華嚴敎家들은 思想的으로는 「華嚴經」을 依用하면서도, 信仰的으로는 勝方便으로써 彌陀淨土信仰을 受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小 結

지금까지 「華嚴經」에 나타난 淨土思想을 세 가지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論述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佛敎 敎學上에서 말하는 一般的인 意味의 淨土란, 말 그대로 '깨끗한 土' 또는 '淸淨한 佛國土' 라는 뜻이다. 그 淨土의 種類는, 凡夫人·聲聞·菩薩·佛의 階位에 따라 다르며, 處所에 따라 唯心·十方·他方淨土로 나누어 說해지고 있다. 「華嚴經」의 蓮華藏淨土는 오직 佛陀의 居所土며, 그 處所는 特定處만이 아니라

報」 第114輯, 天理大學 發行, p. 82)

135 及川眞營, 「祭義が信仰に及ぼす心理的效果に關して」, 「清水龍山古稀記念論文集」, p.398

一切의 十方佛土를 蓮華藏淨土라 할 수 있다.¹³⁶⁾

둘째, 「華嚴經」의 淨土義 佛身義 念佛義에 대해서는 便宜上 彌陀淨土敎學에서 말하는 그것들과 비교해서 그 同異點을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하면 華藏과 極樂, 遮那와 彌陀, 念佛(念佛 念法 念僧과 같은 念佛)과 稱名念佛의 同異點에 관해서 살펴 본 결과, 華藏淨土와 彌陀淨土는 ① 願力所成이라는 점과 ② 衆寶莊嚴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③ 그 場所에서 보면 華藏淨土는 十方의 佛土가 되지만 極樂淨土는 西方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佛身義에 있어 毘盧遮那佛과 阿彌陀佛은 이름은 서로 다르나, 그 意味는 둘 다 無量한 「光明」이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히 똑같다.

念佛義에 있어서, 「華嚴經」 所說의 念佛은 거의 전부가 止觀念佛인데 反해 彌陀淨土敎學에서의 念佛은 稱名念佛로 통일되고 있다는 점에서 念佛義는 서로 전혀 다르다.

셋째, 「華嚴經」 所說의 彌陀淨土義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 봐야 한다. 「六十華嚴經」이나 「八十華嚴經」에는 彌陀淨土思想的인 敎義는 說해지고 있지 않다. 「賢首菩薩品」과 「心王菩薩阿僧祇品」의 단 두 곳에 彌陀淨土思想的인 經句가 說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內容이 없어 彌陀淨土思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入法界品」의 別譯인 般若의 「普賢行願品」 第40卷에 彌陀淨土敎義가 說해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別行의 「普賢菩薩行願讚」이나 「文殊師利發願經」을 遍入시켜, 般若가 譯出한 것이기 때문에 「大本華嚴經」에는 彌陀淨土思想은 거의 說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넷째, 馬鳴 龍樹 등을 위시한 華嚴敎家들은 敎學的으로는 「華嚴

136 法藏『探玄記』卷第3 (『大正藏』35-158c)

經」을 依持하면서도 敎化, 信仰的으로는 彌陀淨土思想을 受用하고 있다. 그런데 그 受用의 자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初期 大乘佛敎 때의 馬鳴이나 龍樹는 劣根者를 敎化하기 위한 方便으로 受用하고 있고, 世親 이후의 華嚴敎家들은 華藏 卽 極樂, 遮那 卽 彌陀 라고 하는 立場에서 彌陀淨土思想을 受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